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김 효 진 *

- I. 머리말
- II. 고려 전기의 제례와 제기
- III.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종류와 제작 방식
 - 1. 제기의 종류와 『삼례도』
 - 2. 제작 방식
- IV.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제작 시기
- V. 맺음말

I. 머리말

1980년대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용인 서리 중덕요지는 4기의 자연층위가 확인된 폐기장을 통해, 해무리굽완 보다 선행하는 청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청자 요업 개시설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용인 서리 중덕요지는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청자 가마의 편년 문제는 기존 자료의 부족과 상이한 견해 차이로 인해 한국 도자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¹ 초기 청자 가마의 편년과 관련한 문제는 가마터 출토유물의 형식 및 양식 비교를

*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¹ 고창 용계리 요지는 1022년의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로 인해 운영 시기가 1022년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으나, ‘태평임술’명 와편이 출토된 건물지와 용계리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요지 편년자료로서의 적합성 문제 등에 관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泔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1985);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vol.1(한국미술연구소, 1995); 이희관,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塼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 第244號(韓國美術史學會, 2004.)

통한 상대적 편년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상대편년을 통한 초기 청자 연구의 방법론은 요지간의 대략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고려시대 ‘제기’라는 특수 기명의 출토 사례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편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전세되고 있는 『三禮圖』형 제기는 1점, 제기가 출토된 요지는 6곳으로, 그 중 2곳은 2000년대 이후에 발굴되었다.² 배천 원산리요지에서는 豆만 약 25점, 시흥 방산동요지는 豆·簋·簋·爵이 약 11점, 여주 중앙리요지는 簋가 약 10점이 출토되었다. 반면 중덕요지는 簋·豆·簋·簋 등의 제기편이 약 103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유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분류나 분석 및 비교 연구가 불가능했다. 고려 전기 제기는 일부 제기의 명문을 통해 제작자가 중국 도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제외하고,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용인 서리 상반요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발굴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제기의 종류와 형태, 제작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점이 일부 풀리게 되었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제기는 약 197점으로, 그 중 『삼례도』형 제기는 99점이다. 이 중에는 중덕요지에서 출토되지 않은 기종도 확인되며, 출토된 제기를 통해 제기가 일상 기명에 비해 규격과 형태에 있어 제한적인 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또한 상반요지와 중덕요지는 지리상으로 인접해 있으며, 출토유물의 양상이나, 가마의 축요재 등이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제기의 규격과 형태를 바탕으로 제기의 제작 시기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⁵

² 『삼례도』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한 제기를 『삼례도』형 제기라 부르겠다. 『삼례도』형 제기가 출토된 요지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김영진,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백산자료원, 2003);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芳山大窯』(2001); 驪州郡·京畿道博物館, 『驪州中岩里 高麗白磁窯址』(2004);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 I』(1987); 同者,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 II』(2003); 機岡文化財研究院·龍仁市·龍仁文化院, 『龍仁西里上高麗白磁窯址-1차~5차 조사 경과보고-』(2007); 명지대학교박물관·(주)보보스컨트리클럽, 『용인 엔젤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자료집』(2009, 12).) 『삼례도』형 제기는 강진 지역에서 청자 보가 1점 수습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소비지의 경우 현재까지 단 두 곳에서만 확인되었는데, 경기도 화성 시 화산동 유적 내 고려 건물지 인근 수혈과 수원 고읍성 유적 발굴 당시 지표에서 『삼례도』형 백자 보편이 출토되었다. 화산동 유적과 고읍성 유적은 인접해 있어 이 두 제기편이 하나의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華城 花山洞 遺跡-화성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 발굴조사 보고서』(2010), p. 272의 도판 ④참고.; 한신대학교박물관·화성군, 『水原 古邑城』(2000), p. 207의 도판 75-1참고.) 이하 용인 서리 상반 및 중덕요지는 중덕요지와 상반요지로 칭하겠다.

³ 이희관, 「始興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 『신라문화』 제23집(신라문화연구소, 2002), pp. 233-227; 張南原,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vol. 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pp. 97-98.

⁴ 현재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보고서는 未刊이다.

⁵ 상반요지의 출토 유물은 퇴적층이 확인된 중덕요지 Ⅲ~Ⅳ층 시기에 해당되므로,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제기의 제작 시기는 중덕요지의 요업시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덕요지의 제기는 출토량은 많으나 상반요지에 비해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적인 제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상반요지 출토 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부 기종에 있어 특징적인 기물은 중덕요지의 제기를 포함시켰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유물을 실견하여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재열선생님과 삼성미술관에 감사드린다.

우선 고려 전기에 사용된 제기도와 특수 기명이 사용되는 제사를 파악하고,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백자 제기를 『삼례도』와 비교하여 종류와 형태, 제작 방식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상반요지에서 확인되는 백자 제기의 규격을 고려 전기에 사용된 도량형과 비교하여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백자 제기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이렇듯 '제기'라는 특수 기명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 제작 시기를 규명하는 작업을 통하여, 고려 전기 제기의 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초기 청자 및 백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고려 전기의 제례와 제기

고려 전기에 어떠한 제기가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소수의 제기를 통해 고려 전기의 제기가 『삼례도』에 근거하였으며, 청자 또는 백자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⁶ 이러한 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기명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중앙과 각 주·현에서 시행되는 제사에 사용된다. 고려의 국가 제사는 大祀·中祀·小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외에 雜祀가 있다. 대사는 원구·방택·태묘 등이 해당되고, 중사는 적전·선잠, 소사는 풍사·우사·주·현의 문선왕묘, 잡사에는 팔관회·연등회·초·명산대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高麗史』에는 제례의 시행 과정과 절차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제사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진설하는 제기의 수량에 차이가 있고, 소사의 대부사서인 제례를 제외하고 변·두·보·괘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제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잡사는 제사의 거행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에 포함된 자세한 의례의 종류와 절차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려 후기의 예이긴 하나 도교 기관인 정사색이 변과 두를 경령전에서 빌렸다는 기록을 통해 초제를 시행할 때 특수한 형태의 제기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⁷ 한편, 명산대천에 제를 올리는 산천제는 고려에서 어떠한 제기를 사용하

6 南秀雄, 「圓山里遺蹟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 『東洋陶磁』 vol. 22(東洋陶磁學會, 1992); 張南原, 앞의 논문(2004); 謝明良, 「北方部分地區元墓出土陶器的區域性觀察-從漳縣汪世顯家族墓出土陶器談起」, 『故宮文物月刊』279期(國立故宮博物院, 2006); 李溶振, 「高麗時代 鼎形青瓷 研究」, 『美術史學研究』 vol. 252(韓國美術史學會, 2006); 張成旭,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 또 다른 도교 기관인 소전색의 경우 청자로 제작된 〈燒錢色銘靑磁盞〉이 확인되고 있다. 도교 기관에 따라 사용된 제기가 다른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잡사의 초제에 일상 기명과 특수 기명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60號(한국미술사학회, 2008), p. 39의 도 1, 2, 3 참고.) 또한 초제가 天地祭祀를 포함하고 있어 園丘·方澤과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親醮가 행해진 점, 제관의 지위가 대사인 원구 및 방택과 동일한 점 등을 통해, 초제가 대사에 준하는 국가제사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金澈雄, 「고려 國家祭祀의 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研究』118(한국사연구회, 2002), p. 144.)

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에 파견된 제고사의 관품이나 公山에 제례를 올린 기간, 제수 등을 통해 지방 산천제는 소사의 예로, 개경에서 치러진 산천제는 대사의 예로 진행되었음이 파악된다.⁸ 따라서 이러한 산천제 역시 특수 기명 형태의 제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⁹ 특수한 형태를 가진 제기의 사용 범위는 중앙에서 지내는 산천제뿐만 아니라, 주·현에서 시행되는 문선왕묘·산천제까지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는 어떠한 형태일까. 고려 전기에 제기도와 관련된 가장 이른 기록은 성종 2년(983)으로, 유교식 예를 위해 北宋의 서적을 받아들인 것이다.¹⁰ 고려에 유입된 제기도를 살펴보기 위해 북송의 예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송은 태조 3년(960), 경학자인 聶崇義에 의해 완성된 『삼례도』를 기반으로 제기를 제작하였으며, 『삼례도』는 총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기와 관련된 것은 12~14권으로, 12권은 匏爵圖로 주기 및 마른 제수를 담는 제기를, 13권은 鼎俎圖로 젖은 제물을 담는 제기와 뚜껑을, 14권 尊彝圖에서는 술을 담는 그릇과 술을 따르는 잔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삼례도』에는 각각의 제기에 대한 설명과 도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기의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¹² 그런데 북송은 政和年間(1111~1117)에 들어서면, 조정에서 『삼례도』와는 다른 古銅器 형태의 제기를 제작하였다.¹³ 이후 1117년에 고려로 제기를 보내었는데,¹⁴ 이 때 고려로 전해진 제기는 북송에서 사

⁸ 公山에는 3일간 제례를 올렸으며, 송산묘에는 대뢰를 올려 제사하였다. 金澈雄, 위의 논문(2002), pp. 144~146 참조; 同者, 「고려시대 山川祭」, 『한국중세사연구』 제11호(한국중세사학회, 2001), pp. 145~147.

⁹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조선에서도 산천제에 특수기명 형태의 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世宗實錄』五禮, 吉禮樣式, 祭山川儀 陳設, “……次設祭器實饌具, 籩八在左, 爲三行右上……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設諸執事盥洗, 又於東南, 俱北向; 執尊彝饌罍者位於尊彝饌罍之後。” 고려의 산천제는 태조대에는 팔관회 체제 내에서 거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성종대에 이르러 유교예제에 의해 정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웅, 위의 논문(2001), p. 128, p. 131.

¹⁰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2年, “甲子, 博士任老成至自宋獻太廟堂圖一鋪并記一卷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祭器圖一卷七十二賢贊記一卷.”

¹¹ 본문의 『삼례도』와 관련된 내용은 文津閣四庫全書本 『三禮圖』(北京: 商務印書館, 2005)를 참고하였다.

¹² 『삼례도』에는 제기의 명칭, 재질, 특징 및 규격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모든 제기마다 규격과 재질 및 특징 등을 표기하지는 않았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기라도 표기한 규격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

¹³ 정화연간(1111~1117)에는 『삼례도』를 조정의 제기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화 5년(1116)에는 체제를 바꾸기에 이른다. 선화원년(1118)에 이르면 예제구에 명해 그림을 그려 제기도를 모든 주에 반포하며, 이에 의거하여 제작하게 하였으나, 후에 주희가 문묘에 방문하였을 때, 주·현의 제기는 여전히 『삼례도』를 따르고 있었다고 한다. 陳芳妹, 「再現三代」, 『千禧斗宋代文物大展』(國立古宮博物院, 2000), p. 294의 주석 13 참고.)

¹⁴ 『宋史』卷119, 禮志16, 宋徽宗 政和 7年, “三月 賜以籩豆各十二簠簋各四登一銅二鼎二罍洗一尊二.”

용하던 고동기형 제기일 가능성이 높다.¹⁵

이러한 『삼례도』의 존재는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靑磁‘淳化四年’銘壺〉와 배천 원산리요지에서 출토된 〈靑磁‘淳化三年’銘豆〉는 각각 『삼례도』의 태준과 두에 기인하여 제작되었다(표 1). 두와 태준은 굽바닥에서 확인된 음각 명문을 통해 태묘에서 사용하기 위해 992·993년에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92년과 994년에 태묘에 제를 지낸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어,¹⁶ 고려에서 983년에 유입된 『삼례도』를 기반으로 태묘 제기를 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도 1, 도 2). 따라서 성종 2년(983)에 고려로 유입된 제기도는 『삼례도』임을 알 수 있으며, 고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태묘에서 사용할 제기를 자기로 제작하였고, 북송에서 새로운 제기가 유입되는 1117년 이전까지 『삼례도』형 제기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표 1 『삼례도』와 ‘淳化’명 제기

			
<p>태준</p>	<p>〈淳化四年銘壺〉, 993년 高 35.5cm, 口徑 19.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소장 (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p. 593)</p>	<p>두</p>	<p>〈淳化三年銘豆〉, 992년 高 25.5cm, 底徑 24.5cm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2호 묘지 출토 (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p. 185)</p>

¹⁵ 고동기형 제기는 북송 수내사 관요에서 청자로 확인되고 있어, 조정의 제기가 『삼례도』형에서 고동기형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幻の名窯 南宋修内司官窯』(2010), pp. 78-79의 도판9 참고.) 한편 1117년에 유입된 제기가 1113년에 편찬된 『政和五禮』에 의거한 제기였을 것이라 추정할 견해도 있다. (李浴振, 앞의 논문(2006), p. 158.) 중국의 경우 중앙에서 제기도가 변함에 따라, 주·현에 변화된 제기도를 반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삼례도』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려 역시 1117년에 고동기형 제기가 유입된 이후에도 『삼례도』형 제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12세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묘지에서 현재까지 『삼례도』형 제기가 출토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비해 국가 면적이 넓은 중국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1117년 이전까지를 『삼례도』형 제기의 제작 시기 하한으로 보고 있다.

¹⁶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11年, “十二月 太廟成...凡在諸儒, 尙知予意.” 是月, 親禘于太廟.”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13年, “夏四月 甲辰 禘于太廟, 躋戴宗于第五室.”



도1 <淳化三年'銘豆>의 명문 세부, 992년,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요지 출토(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p. 185)



도2 <淳化四年'銘壺>의 명문 세부, 993년, 이화여자 대학교박물관소장(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p. 593)

할수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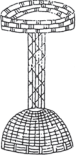





Ⅲ.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종류와 제작 방식

『고려사』에서 명칭이 언급되는 제기는 대략 33종으로,¹⁸ 대부분 『삼례도』의 13, 14권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전세품인 태준과 시흥 방산동요지에서 출토된 작편을 포함하여 약 10종의 『삼례도』형 제기가 자기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簠·簋·簠·豆·壺尊·著尊·象尊·獻尊의 8종의 제기가 상반 또는 중턱요지에서 출토되었다(표 2). 『삼례도』에 등장하는 제기들은 주로 金屬器, 陶器, 木器, 竹器 등으로 재질이 명시되었으며, 제기의 전면에 붉게 칠을 하는 제기가 다수 확인된다. 중턱과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제기의 재질이 『삼례도』에서 모두 확인되지는 않으나, 보·

¹⁷ 새로운 제기가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삼례도』형 제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적어도 1117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삼례도』형 제기의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1117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제기는 금속기로 제작한 고동기형 제기로 짐작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고려시대에 제작 및 사용되었을 고동기형 제기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기의 재질과 형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의 고려시대 청자요지에서는 향로를 제외한 두나보·궤 등과 같은 제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종 2년(1136)에 원릉의 제기를, 의종 18년(1164)에는 태묘의 제기를 훔쳐갔다는 기록을 통해, 제기가 자기가 아닌 값나가는 금속기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高麗史』卷16, 世家16, 仁宗 2年, “辛丑 盜竊元陵祭器殺守陵三人.”;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18年, “八月 辛酉 王微行, 移御安和寺. 庚辰 移御景福寺. 辛巳 盜竊太廟祭器.”

¹⁸ 簠·簋·簠·豆·甄·匏爵·玉爵·爵·山罍·象尊·壺尊·山罍·太尊·著尊·犧尊·雌彝·虎彝·罍彝·黃彝·鉶·盤·俎·勺·玷·祝版·篚·肆篚·副篚·瓚·珪瓚·匱·盥洗·爵洗 등 약 33종에 해당한다. 명칭을 언급한 제기 외에도 진설 과정에서 잔과 잔탁 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실제 제사에 사용된 기물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용인 서리 요지에서 출토 된 『삼례도』형 제기의 종류

삼례도								
명칭	보	궤	변	두	호준	착준	상준	현준
용도	벼·메조	메기장 찰기장	과일 (마른음식)	나물·고기 (젓은음식)	명수·양제	현주·예제	현주·양제	명수·예제

궤·두·호준·현준·착준·상준 등은 『삼례도』에서 모두 칠이 칠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붉게 칠해진 簠·簋·豆·敦·甕·爵·卣·匜 등은 도기나 목기로 제작한다고 하여, 상반과 중턱요지에서 도기나 목기로 만든 제기를 자기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¹⁹

본 장에서는 상반요지 출토 제기의 종류와 형태를 『삼례도』와 비교해보고 제기의 제작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제기의 종류와 『삼례도』

1) 보(簠)

보는 벼와 메조를 담은 그릇으로, 『삼례도』의 보는 외면은 방형, 내면은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벽은 수직으로 내려가며, 끝이 살짝 외반한 굽이 달려 있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보는 기본적인 外方內圓의 구조는 동일하나, 기벽이 사선으로 좁아드는 형태, 기벽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구분되며, 또한 굽은 수직으로 내려오거나, 끝이 살짝 외반한다(표 3). 특히 기벽의 선, 굽의 표현 등 세부 표현에서 『삼례도』의 도안과 동일한 형태의 보가 확인되어 주목된다(표 3의 ③).

2) 궤(簋)





궤는 보와 짝을 이루어 진설하는 제기로 메기장과 찰기장을 담는다. 『삼례도』의 궤는 외면

¹⁹ 북송의 경우 현재까지 자기로 제작된 『삼례도』형 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 『삼례도』와 상반요지 출토 보의 기형 비교

			
<p>보</p>	<p>①<백자보> 高 25.6cm 口徑 16.8~20.1cm (국립중앙박물관)</p>	<p>②<백자보> 高 32.4cm 復原口徑 18.5~21.2cm (국립중앙박물관)</p>	<p>③<백자보> 高 33.3cm 口徑 19.2~26.4cm</p>
<p>특징</p>	<p>높이 낮음 기벽 사선 굽 수직</p>	<p>높이 높음 기벽 사선 굽 수직</p>	<p>높이 높음 기벽 수직 굽 외반 (『삼례도』와 유사)</p>

표 4 『삼례도』와 상반요지 출토 궤의 기형 비교

				
<p>궤</p>	<p>①<백자궤> 高 25.4cm 口徑 18.4~24.0cm (국립중앙박물관)</p>	<p>②<백자궤> 高 25.0cm 口徑 13.5~20.6cm (국립중앙박물관)</p>	<p>③<백자궤> 高 29.1cm 口徑 15.2~21.4cm (국립중앙박물관)</p>	<p>④<백자궤> 高 34.8~35.5cm 口徑 13.6~22.4cm</p>
<p>특징</p>	<p>높이 낮음 기벽 사선 평저</p>	<p>높이 낮음 기벽 사선 굽 수직</p>	<p>높이 높음 기벽 사선 굽 외반</p>	<p>높이 높음 기벽 수직 굽 외반 (『삼례도』와 유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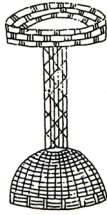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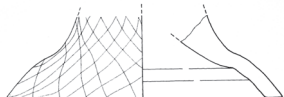

은 원형, 내면은 방형의 형태이다. 기벽은 구연부에서 수직에 가깝게 내려가다 저부에서 좁아지며, 굽은 사선으로 외반한다. 상반요지의 궤는 내방외원의 구조, 기벽이 저부로 갈수록 사선으로 좁아드는 형태가 『삼례도』와 유사하나, 수직굽과 평저인 것이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표 4). 보와 궤는 높이가 낮고 부피감이 있는 것과 높이가 높고 세장하며, 부피감이 적은 것, 높이가 높고 부피감이 큰 3종류로 분류된다(표 3, 4).

4) 두·변(豆·邊)

두는 본래 木器로 물기 있는 음식을 담아 올리며, 변은 본래 竹器로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과 같은 물기 없는 재물을 담는다.²⁰ 『삼례도』의 두는 3개의 둥근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으며, 접시형의 몸체 중앙에 원통형 기둥이 몸체와 굽을 연결하고 있다. 기둥의 가장자리에는 돌대와 같이 돌출된 형태로 장식되었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두는 굽의 일부만 확인되나, 중앙에 원통형 기둥을 붙였던 흔적을 통해, 두임을 알 수 있다. 출토된 두의 굽은 측사면의 형태가 볼록하거나, 사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표 7).

변은 중덕요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재질만 다를 뿐 두와 기형이 유사하며, 외면에 대오리로 엮은 것과 같은 표현을 위해 선을 교차로 음각하였다(표 7).

표 7 『삼례도』와 상반 및 중덕요지 출토 두·변의 기형 비교

	 <p>〈백자두편〉 現高 8.0cm, 底徑 25.6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p>		
	 <p>〈백자두편〉 現高 5.0cm, 底徑 24.1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p>		
두		변	

5) 호준·착준(壺尊·著尊)

호준과 착준은 가을과 겨울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로, 호준은 明水와 盞齊를 착준은 玄酒와 醴齊를 담는다. 『삼례도』의 호준은 구연부가 나팔형으로 벌어지고, 동체는 둥근 곡선을 이룬다. 경부의 아랫부분에 1줄의 띠 형태가 확인되며,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외반한다. 서리 중덕

²⁰ 궁중유물전시관, 『중요대제문물』(2004), p. 26.

과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호준은 전체적인 구조가 도안과 유사하나, 세부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구연에서 등글게 내려와 경부에서 잘록하게 좁아들었다가 다시 곡선을 이루는 형태, 구연부가 사선으로 내려오다 목에서 꺾이고, 견부에서 등글게 벌어지는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저부는 사선으로 좁아들다가 꺾여 수직의 굽을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8).

한편 『삼례도』의 착준은 굽이 없는 원통형의 몸체로, 중앙에는 원형 장식이 있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착준은 원통형의 몸체, 중앙에 뚫려 있는 둥근 구멍이 도안과 유사하나, 원통형 굽이 달려 있어 차이가 있다(표 8). 특히 착준이 술을 담는 제기임을 감안하였을 때, 몸체 중앙에 뚫린 구멍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례도』에서는 착준의 몸체 중앙에 귀가 장식되어 있다고 서술하였으며, 도안에서는 이를 원형으로 표현하였다. 즉 상반요지의 착준은 『삼례도』 도안의 원형 장식을 원형 구멍으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기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도안을 모본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된 착오라고 생각된다.²¹

표 8 『삼례도』와 상반 및 중덕요지에서 출토된 호준·착준의 기형 비교




					
호준	①〈백자호준편〉 現高 22.0cm 復原口徑 15~16.0cm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	②〈백자호준편〉 現高 33.0cm 復原口徑 16.2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백자호준편〉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	착준	〈백자착준〉 現高 20.6cm 口徑 17.5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6) 상준·현준(象尊·獻尊)

상준과 현준은 봄과 여름 제사에 올리는 제기로서, 상준은 현주와 양제를, 현준은 명수와 예제를 담는다. 『삼례도』의 상준은 원통형의 몸체에 코끼리를 그려 장식하고 있으며, 굽은 외반한다. 상준은 중덕요지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외면에는 음각으로 문양을

²¹ 착준은 상반요지 이전에 발굴된 요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착준이 상반요지에서 처음 제작된 것이었다면 도안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형태를 설명한 것을 전해 듣고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착준이 도안이 아닌 실물의 본을 보고 모방한 것이라면, 술을 담는 용기임을 감안하여 몸체 중앙에 구멍을 뚫을 것이 아니라, 『삼례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둥근 장식을 부착하거나 새겨 장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삼례도』와 상반 및 중덕요지 출토 상준·헌준 기형 비교

			
<p>상준</p>	<p>〈백자상준편〉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p>	<p>헌준</p>	<p>〈백자헌준편〉 現길이 12.9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p>

시문하였는데, 굽고 두터운 발과 몸체에 표현된 짧은 주름을 통해 상준임을 알 수 있다(표 9).

소의 그림을 그려 넣은 제기를 『삼례도』에서는 헌준이라 한다.²²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헌준은 동체 일부만 확인되는데, 물레로 성형하였으며, 동체의 외면에 음각 문양을 시문하였다. 배와 가슴에 골격을 표현한 세로 줄, 다리로 이어지는 곡선을 통해 헌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이렇듯 상반과 중덕요지에서는 8종의 『삼례도』형 제기가 백자로 확인되었으며, 도기나 목기, 죽기 등으로 제작하는 기물을 자기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삼례도』의 도안과 흡사하나, 형태가 도안과 동일한 것이 있는 반면 세부적인 기형, 굽의 형태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제기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보나 궤·착준과 같이 『삼례도』의 도안과 형태가 동일한 제기의 경우, 제작할 당시 도안을 중심으로 모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2. 제작 방식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보와 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크게 테쌍기와 물레를 이용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는 테쌍기를 이용하여 기본 내벽을 원통형으로 제작한 후, 외면에 태토를 한 겹 또는 두 겹으로 덧붙여 준 다음 원통형의 외면을 정방형의 형태로 잘라냈다. 결과적으로 보의 외면은 방형, 내면은 원통형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사방 모서리는 몸체에 비해 한 겹, 또는 두 겹의 태토가 덧붙여진 형태로 확인된다(표 10).

궤는 테쌍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하였는데, 첫번째는 반원기둥의 형태로 네 면을 따로 만들어 각 면의 모서리를 연결시켜주고 외면 전체를 태토로 감싸 덮어 제작하는 것이다(표 11).

²² 소의 형태나, 소의 그림이 그려진 제기를 “犧尊”이라고 하며, 본래 중국 周代의 국가제사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최순권, 『종묘제기고』, 『종묘대제문물』(궁중유물전시관, 2004), p. 166.

표 10 테쌓기를 이용한 보 제작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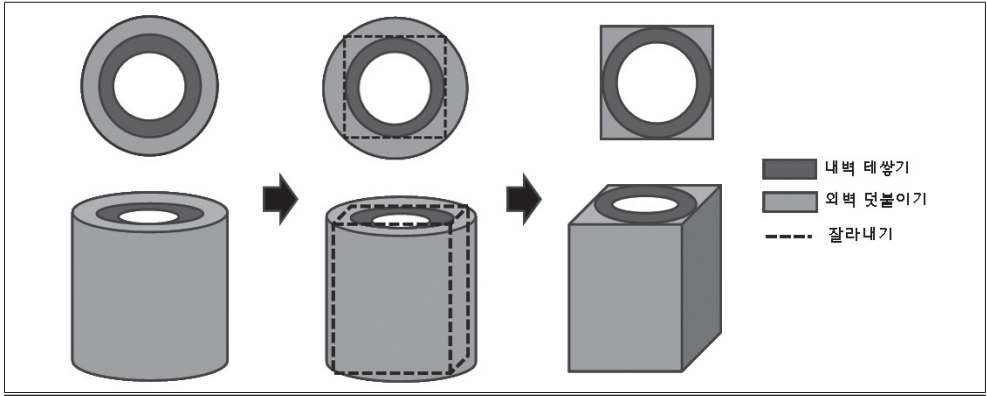


표 11 테쌓기를 이용한 궤 제작 개념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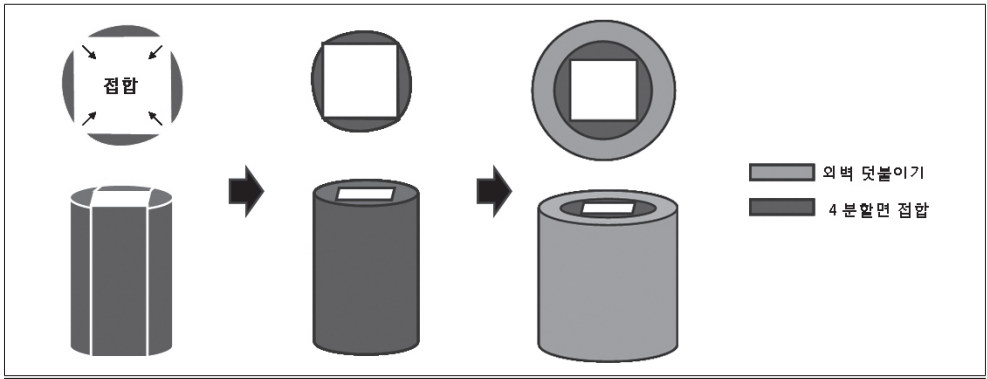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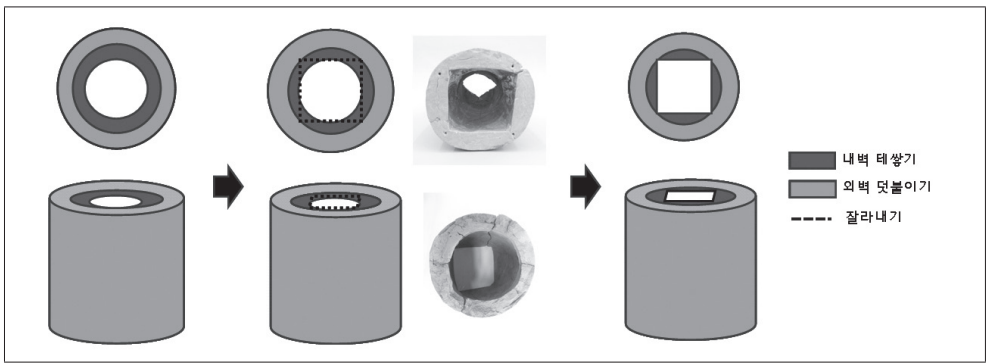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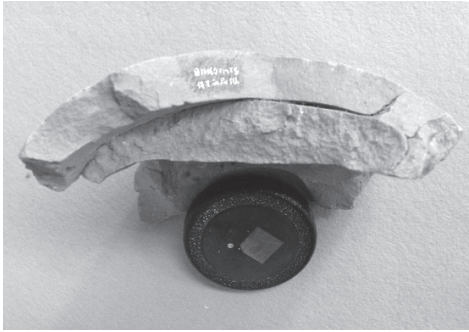


표 12 테쌓기를 이용한 궤 제작 개념도 2





도3 <백자제기궤편>,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표 13 물레를 이용한 보 제작 방식



<백자제기보편>, 現高 11.2cm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이러한 제작 방식은 안쪽을 방형으로 잘라낼 필요 없이 외면은 원형, 내면은 방형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네 면을 연결한 부위가 약해, 소성할 당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쉽게 확인된다(도 3). 두번째는 테쌓기로 내벽을 원통형으로 제작한 후, 외면을 태토를 감싸 덮고, 구연부만 방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궤는 구연부 내면만 방형이고, 동체부 내면과 외면 전체는 원통형을 이룬다(표 12). 보와 궤는 몸체에 바닥을 한 겹 또는 두 겹으로 덧붙인 후 굽을 덧붙였는데, 기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소성 당시 덧붙인 태토의 사이가 갈라지고 터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제작 방식은 물레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각각 내면과 외면을 원통형으로 제작하고, 기벽이 마르기 전에 외면을 방형의 형태로 구부렸다.²³ 내면과 외면은 구연부 부분에 상판을 감싸 붙여 연결해주었다(표 13).

물레 제작법으로 제작한 제기는 내면과 외면, 상판 등을 접합한 후에 시유하여, 내면과 외면 사이의 빈 공간은 유약이 묻어 있지 않다. 물레 제작법은 테쌓기에 비해 제작이 손쉬우며, 무게가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다.²⁴

이렇듯 상반요지의 보나 궤는 테쌓기와 물레를 이용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제작 방식에서 선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일상 기명과는 다른 크기와 형태로 인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궤의 경우 4분할로 나눠 접합하는 방식에서 테쌓기를 이용하여 원통형으로 기물을 성형한 후 구연부를 방형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테쌓기 중 4분할 접합 방식은 구연부를 잘라내는 것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효율

²³ 상반요지에서는 물레 제작법을 이용한 청자 궤도 확인되었다.

²⁴ 물레를 이용한 성형 방식은 상반요지보다 먼저 요업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흥 방산동요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IV장 제작 시기에서 다루었다.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안을 모방하기 위한 초기의 제작 기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궤의 경우 4분할 접합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소수의 제기만 테쌓기 후 구연부를 방형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IV장에서 언급하겠지만 보와 궤의 경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크게 제작한 것으로 시간적 순서가 확인되는데, 구연부를 잘라낸 것이 가장 늦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작 방식은 4분할 접합 방식에서 테쌓기 후 구연부 잘라내기 방식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백자 제기의 제작 시기

지금까지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편년은 고려 청자의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주로 선해무리굽이 출토되는 I층과 II층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학자들은 국내 청자의 제작 시기를 크게 9세기 설과 10세기 설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그 안에서 9세기 전반과 후반, 10세기 전반과 후반 등으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⁵ 이러한 학설은 주로 선해무리굽완과 해무리굽완의 형식과 양식으로 대변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중덕요지 I·II층의 출토 유물이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중덕요지 III층의 운영시기는 앞선 층위의 시기에 따라 자연히 9세기 설의 경우 10세기경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0세기 설의 경우 11세기경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이러한 상이한 견해 차이로 인해 중덕요지의 운영시기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의 요장들은 해무리굽완을 포함한 일상 기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마터 출토 유물의 형식과 양식 비교를 통해 연구되었는데, 기준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편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반요지는 중덕요지 III층과 요업 방식 및 출

²⁵ 초기 청자의 발생과 관련한 학설들은 주로 국내의 해무리굽완과 선해무리굽완을 중국과 양식과 형식을 비교한 것이 근거가 되었으며, 김재열과 최건은 국내 청자 제작의 시작을 9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으며, 정양모는 9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종민은 초기 청자의 출현 시기를 10세기 전반으로 보았으며, 중덕요지 III·IV 층을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이희관은 10세기 2/4분기, 윤용이는 10세기 후반에 초기 청자가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金載悅,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p. 225-231; 崔健, 「初期靑磁 編年問題 再論」, 『美術史學研究』 第250·251號(韓國美術史學會, 2006), pp. 141-143;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 180-185;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87-188; 李喜寬, 「高麗 初期靑瓷과 越窯의 關係에 대한 몇 가지 問題」, 『史學研究』 96(韓國史學會, 2009), p. 12; 尹龍二, 「韓國 靑瓷의 成立」, 『美術史論壇』 15(한국미술연구소, 2002), pp. 159-162.)

²⁶ 보고서에 따르면 중덕요지의 운영시기는 I층이 9세기 전반, II층이 9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고, IV층은 11세기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湖巖美術館, 앞의 보고서(2003), pp. 194-197.)

토 유물이 유사하여 두 요지가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반요지의 운영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중덕요지 Ⅲ층의 운영시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상반요지의 발굴 이전까지 전체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기는 <‘순화4년’명호>와 <‘순화3년’명두> 뿐이었으나,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27점의 보와 19점의 궤 중 8점의 제기가 높고, 저경, 구경 등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삼례도』와 비교가 가능하다.²⁷ 상반요지에서 비교가 가능한 보와 궤는 크게 형태와 규격을 기준으로 3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1척이 약 25cm인 제기로, 보의 경우 『삼례도』와 달리 저부가 좁아들고, 궤는 굽이 없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1척이 약 29~31cm인 제기로, 1척이 25cm로 제작된 보와 궤에 비해 높이의 비율은 『삼례도』와 유사하나, 저부가 좁아드는 형태로 세부 표현에 차이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1척이 약 33~34cm인 제기로, 세 종류 중 부피가 가장 크며, 전체적인 비율이나 세부적인 형태가 『삼례도』와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4, 15).²⁸ 『삼례도』에서는 각 제기의 규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기준으로 용인 서리 상반요지에서 제작된 제기의 규격을 비교하는 한편, 고려 전기에 사용된 척을 이용하여 제기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보려 한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사용된 척은 기록이나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척을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²⁹ 남아 있는 명문자료 및 실물자료, 관련된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제기 중 높이가 약 25cm인 궤는 『삼례도』에서 높이를 1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척을 약 25cm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 『삼례도』와 유사하나, 상반요지의 보와 궤는 굽의 유무나 기벽의 형태에서 차이가 확인되며, 전체적인 비율이 작다(표

²⁷ 자기는 금속기와 달리 제작 과정에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며, 상반요지 출토 제기는 폐기장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논지를 진행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기라는 기물의 특성상 공정에 만전을 기하였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제작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반요지의 도공들이 제기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나아가 『삼례도』와 실물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통해 도공들이 수축율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²⁸ 상반요지 출토 유물의 규격과 용적은 유물을 분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완형이 아니므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²⁹ 다만 12세기 이후에는 금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금척이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卷84, 志38 刑法1 刑杖式尺, 用金尺;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8月 戊寅. (이종봉, 「고려시대의 도량형과 그 의미」, 『天下均平-度·量·衡 600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1), pp. 203-204.) 한편 宋代의 척은 唐代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포백 척은 1척이 31.6cm 정도로 추정되며, 이 외에도 각 지방마다 淮尺·浙尺 등이 존재하였고, 1척은 약 36.0cm, 27.5cm라고 한다.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혜안, 2001), pp. 37-38.) 12세기 이후 외교관계를 통해 금척이 수용된 것과 같이 12세기 이전에도 고려가 북송의 척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순화’명 제기를 통해 본 1척의 기준은 송대의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송대의 척이 아닌 『삼례도』형 제기의 실제 규격을 통해 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송대의 척과 관련한 것은 추후 연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14의 ①, 표 15의 ①)³⁰. 그러나 고려 전기에는 1척을 약 25cm로 기준하는 기록이나 실물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990년에서 992·993년 사이에 제작된 <순화3년>명두, <순화4년>명호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시흥 방산동요지의 궤를³¹ 『삼례도』와 비교하면 1尺이

표 14 『삼례도』 궤와 상반요지 출토 궤의 규격 비교











					
삼례도	①	②	③	④	
높이(cm)	1尺	25.0	29.1	34.8~35.5	34.7
구경(cm)	5寸2分	13.5~20.6	15.2~21.4	13.6~22.4	15.7~22.0
저경(cm)	6寸	16.0	15.0	18.2	19.8
깊이(cm)	7寸2分	-	24.0	25.5	25.0
용량(ℓ)	1척2升	2.4	3.6	3.9	-

표 15 『삼례도』 보와 상반요지 출토 보의 규격 비교

					
삼례도	①	②	③	④	
높이(cm)	-	25.6	32.4	30.8	33.3
원형구경(cm)	6寸	16.8	18.5(복원)	-	19.2
저경(cm)	6寸	12.8	13.5	13.0	-
굽높이(cm)	2寸	4.3	5.3	5.8	6.8
깊이(cm)	7寸2分	20.3	25.4	24.6	25.0
두께(cm)	8分	1.5	0.9~1.2	1.2	2.4~4.5

³⁰ 『삼례도』에서 보의 높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궤와의 규격 비교 및 전체 비율을 통해 약 25cm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³¹ 淳化는 북송 태종대의 연호로 이것이 사용된 시기는 990년에서 994년까지이며, 시흥 방산동요지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에 폐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塼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第228·229號(韓國美術史學會, 2001), p. 77, p. 94; 李喜寬,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4권 2호(역사문화학회, 2011), p. 39.)

표 16 『삼례도』와 10세기 후반에 제작된 『삼례도』형 제기의 규격 비교

						
명칭 삼례도 태준	〈순화4년(993)명 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관소장	삼례도 두	〈순화3년(992)명 두〉, 배천 원산 리출토	삼례도 궤	〈궤〉 시흥 방산동 출토	
높이	1尺3寸5分	35.2cm	1尺2寸	25.5cm	1尺	20.5~21.5cm
구경	1尺	19.5cm	-	-	5寸2分	-
저경	8寸	15~16.0cm	1尺2寸	24.5cm	6寸	-

약 20~21cm로 확인되어,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에 1척을 약 20~21cm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16).³² 그런데 이후 현종 21년(1030)으로 확인된 금석문의 기록과 日本 大阪市 大淀區 長柄 鶴滿寺 鍾의 실제 규격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종의 전체 높이는 92.4cm이며, 동체의 높이를 기록에서 확인되는 2척 4촌 2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1척이 약 29~31cm가 된다. 즉 1척의 기준은 10세기 말~11세기 초반에 사용된 약 20~21cm에서 1030년경에는 약 29~31cm로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³ 따라서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1척이 약 25cm인 보와 궤는 ‘순화’명 제기와 시흥 방산동요지 제기가 제작된 이후, 즉 11세기 초반에서 현종 21년(1030) 이전의 어느 시점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³² 시흥 방산동에서 출토된 궤는 보고서에 구연부편과 저부편으로 각각 기재되었으나, 최근 필자가 각각의 두 점이 1점의 궤이며, 접합되는 편임을 확인하여 규격 측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순화4년명호〉는 저경이 6.8cm로 표기되어 있으나, 구경 20cm와 비교하였을 때, 기재된 규격과 실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기 청자 I』(예경, 2000), p. 50 참고.) 따라서 도판의 규격을 비례식으로 풀어본 결과 저경은 약 15~16.0cm로 추정되며 도판의 저경 표기는 오기로 생각된다.

³³ 『韓國金石遺文』 太平10年銘鐘, “太平十年二月日 寺棟梁元康節口 青金鐘入三百斤 長二尺四寸二.” 태평 10년 ‘二月’은 藤田亮策, 『高麗鐘의銘文』, 『朝鮮金石鑲談』(亞細亞文化史, 1979), p. 84에는 ‘二月’로 기록되어 있으나, 坪井良平, 『朝鮮鐘』(角川書店, 1974), p. 91에는 ‘十二月’로 기록되어 있다. (李宗峯, 앞의 책(혜안, 2001), p. 78 재인용.) 이 종의 전체 높이는 92.4cm이다. (金禧庚, 『韓國梵鐘目錄』(韓國梵鐘研究會, 1978), p. 113.) 坪井良平의 실측 도면에 의하면 동체와 용뉴가 붙어 있는 부분을 약 4.5cm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동체 규격에 더하고 뺀 차이로 동체의 길이는 69.7cm이거나, 74.2cm가 된다. 명문에서 언급한 동체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를 2척 4촌으로 2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동체 길이가 69.7cm일 때 1척이 28.9cm이며, 동체 길이가 74.2cm일 때, 1척이 30.7cm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두 사이즈를 함께 표기하였다. (坪井良平, 위의 책(1974), p. 90의 실측 도면 참고, 도판 48, 49 참고.)

상반요지에서 제작된 높이가 약 29~31cm인 보나 궤는 전체적인 형태가 세장하고 부피가 적다. 세부적인 형태는 1척이 약 25cm인 보나 궤처럼 굽으로 갈수록 기벽은 사선으로 좁아들어 『삼례도』와 차이가 나타난다(표 14의 ②, 표 15의 ②, ③). 이러한 제기는 1척을 약 29~31cm로 기준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종 21년(1030)년에 1척의 규격이 약 29~31cm로 확인되므로, 1척이 약 29~31cm인 보와 궤는 현종 21년(1030)을 전후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높이가 약 33~34cm인 제기는 비율과 형태가 도안과 흡사한 것을 통해 엄격한 규정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현재까지 1척이 약 33~34cm로 확인되는 실물 자료나 명문자료 및 문헌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려사』에서 정종 6년(1040)에 度量衡을 정비한 기록이 눈에 띈다.³⁵ 정종 6년(1040)의 양제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전의 혼란했던 도량형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준에 사용되고 있던 1척의 기준이 정종 6년(1040)에 이르러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1척이 약 33~34cm로 제작된 제기가 『삼례도』의 도안과 그 비율이나 형태가 흡사한 것은 새롭게 정비된 도량형의 기준에 맞추어 규격과 도안을 엄격하게 따라 생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이러한 제기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고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의 경우 禮器尺의 제정 후 이듬해 제기의 제작이 확인되고 있다.³⁷ 따라서 고려에서도 도량형을 정비한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제기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상반요지의 제기는 11세기 전반에 제작되었

³⁴ 다만 높이나 구경이 커진 반면, 용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개 규격이 커지면 용적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나, 1척이 약 33~34cm인 제기는 바닥을 두텁게 제작하여 1척이 약 29~31cm인 제기와 용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제작 당시 용적을 감안하고 제기의 밑바닥을 두텁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1척을 약 33~34cm로 제작한 제기 중 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보나 궤에서도 깊이가 25cm로 동일한 것을 통해 이러한 용적을 의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³⁵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6年. “庚申, 二月 壬子 命有司, 定權衡, 平斗量.”

³⁶ 정종 12년(1046)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뇌사지 출토 〈靑銅油斗〉는 1斗가 약 5l 에 해당되므로(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1999), p. 51의 도55 참고.), 1척이 약 33~34cm인 상반요지 출토 제기의 1두의 용적(3.3l) 과 비교하여, 상반요지 제기가 정종연간에 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종 7년(1053)의 기록을 보면, 量器의 규격을 곡류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양기에 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양기의 규격이 다르고, 1두의 기준 역시 동일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1척이 약 33~34cm인 제기는 가장 을 담는 것이므로, 사뇌사 유두의 1두와는 기준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史』卷84, 志38 刑法 職制 文宗 7年 判, “內外官斛長廣高, 方酌定, 米斛則長廣高, 各一尺二寸, 稗租斛, 長廣高, 各一尺四寸五分, 末醬斛, 長廣高, 各一尺三寸九分, 太小豆斛, 長廣高, 各一尺九分.”

³⁷ 『世宗實錄』卷2, 世宗 卽位年 12月 19日(甲午) 禮曹啓. “謹稽 《儀禮》 《鄉飲酒禮》: ‘薦脯, 用籩五臚, 祭半臚橫于上, 臚長尺二寸.’ 注云: ‘臚, 猶臚也.’ 不言廣厚之制, 自今供祭脯長, 乞依此制, 其廣則二寸, 厚以三分, 尺用造禮器尺.” 從之.

『世宗實錄』卷7, 世宗 2年 閏1月 14日(癸未) 禮曹啓. “今新造祭器與古器, 大小不同, 其諸處奠物, 量器更定.”

표 17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백자 제기 제작 시기

성종2 (983)	성종11·12 (992·993)	현종21 (1030)	정종6 (1040)	정종12 (1046)	문종7 (1053)	문종13 (1059)	문종18 (1064)	예종12 (1117)
983: 『삼례도』 유입		1040: 도량형 정비		1053: 곡두식 제정		1059: 『삼례도』조판본 비서각에 보관		1117: 북송의 새로운 제기 유입
992·993: '순화'명 제기로 태모 제사 시행 1尺=약20~21cm		1030: 1尺=약29또는31cm		1046: 8목 계수관이 양계 관장		1064: 제고사의 파견으로 인한 폐단 시정		
1尺=약25cm		1尺=약29~30cm 1斗=3.0℔		1尺=약33~34cm 1斗=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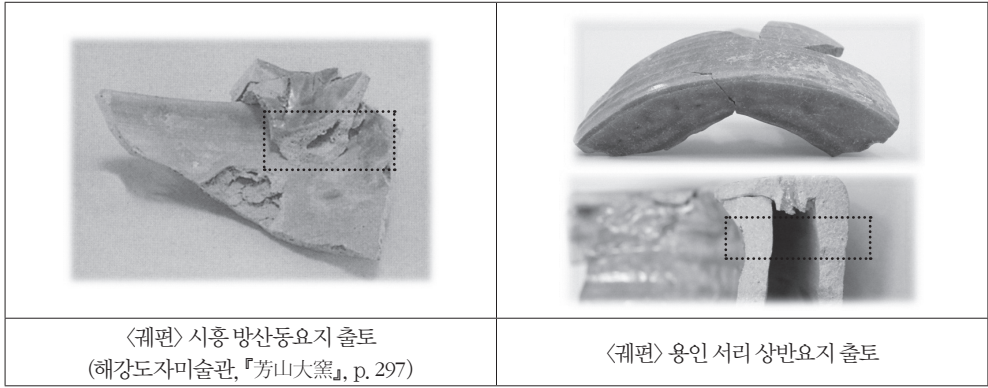
으나, 규격에 따라 제작 시기가 세 시기로 구분되며, 각각의 제기는 시기에 따라 형태적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17).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궤는 주로 4분할 접합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1척이 약 33~34cm로 제작된 궤의 경우 테쌓기로 동체를 제작한 후 구연부를 방형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눈에 띈다. 구연부를 오려내는 방식은 4분할 접합 방식에 비해 제작이 손쉬우며, 사방 모서리가 터져나가는 확률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세 종류의 궤 중에서 1척을 약 33~34cm로 제작한 궤가 가장 늦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궤는 4분할 접합 방식에서 구연부 잘라내기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제작의 용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척의 변화는 제기의 제작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방산동요지에서 출토된 궤는 내면과 외면 사이가 빈 공간 없이 밀착된 반면, 상반요지의 궤는 내외면의 기벽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차이가 있다(표 18).³⁸ 시흥 방산동요지 출토 궤는 두께가 약 2cm인 반면, 상반요지 출토 궤는 내외벽의 빈 공간을 포함하여 두께가 약 2.6cm에 해당한다. 『삼례도』에서 궤의 두께는 8分으로 정하고 있는데, 『삼례도』에 의거하여 궤를 제작하였을 때, 시흥 방산동의 궤는 1分을 약 0.25cm로, 용인 서리 상반요지의 궤는 1分을 약 0.33cm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즉 기준척이 높아짐에 따라 궤의 두께 역시 두꺼워졌으며, 이러한 두께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요지에서는

³⁸ 즉 물레로 제작한 용인 서리 상반요지 궤와 시흥 방산동요지 궤는 외형적으로 두께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삼례도』에서는 궤의 두께를 8分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산동요지에서 출토된 궤의 두께는 내외벽이 각각 약 1cm이며, 상면의 폭은 2cm이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궤의 경우 실제 내면과 외면의 기벽 두께는 약 1.4cm 정도이나, 내외면 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두께는 약 2.6cm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작 기법의 차이는 당시 사용된 규격에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표 18 시흥 방산동요지와 상반요지 궤의 두께 비교



내외벽의 공간을 띄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척의 변화에 따른 제작 방식의 새로운 적용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반 및 중덕요지는 다른 요지와 비교하여 『삼례도』형 제기편의 출토량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확인된다. 목종연간(997~1009)부터 숙종연간(1095~1105)에 걸쳐 역대 왕들의 재위 기간과 『삼례도』형 제기를 사용한 대·중·소사의 시행 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재위기간 대비 제사의 횟수는 선종연간(1083~1094), 정종연간(1034~1046), 숙종연간(1095~1105)이 많았다.³⁹ 특히 정종연간(1034~1046)의 경우 앞선 시기와 달리 소사의 제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전에 비해 제기의 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사의 증가는 문종 18년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종 18년(1064)에는 기존에 행해져 오던 제고사의 파견해 왔으나, 그 행사가 잦아 역로가 피폐해진 것을 시정하는 기록이 확인된다.⁴⁰ 이는 문종 18(1064) 이전까지 지방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종연간부터 문종 18년 이전까지 중앙 외에도 지방에서 제기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종연간(1046~1083)에 확

³⁹ 제사의 시행은 『高麗史』世家 및 禮志의 기록을 참고하였으며, 현종(1094~1095)의 경우 재위기간이 1년의 짧은 기간에 전적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로 보아 제외하였다. 잡사의 경우 초제와 명신대천제만 포함하였으며, 기청제, 기우제, 기설제 등은 『삼례도』형 제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제외하였다.

연표 제사	목종 (997~1009)	현종 (1009~1031)	덕종 (1031~1034)	정종 (1034~1046)	문종 (1046~1083)	선종 (1083~1094)	숙종 (1095~1105)
대사	1	4	-	3	6	3	-
중사	-	1	-	-	1	1	1
소사	-	-	-	4	-	-	-
잡사	-	1	1	4	11	10	9
합계	1	5	1	11	18	14	10

⁴⁰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18年. “二月 癸酉 制曰 准舊例, 發遣春秋外山祭告使一十餘道, 使命煩多, 驛路凋弊.”

인된 祭器都監이나 奉先庫, 都齋庫 등의 존재는 이전까지 급증한 제사와 제기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제기의 제작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⁴¹ 따라서 상반 및 중덕요지에서 다수의 『삼례도』형 제기가 출토되는 것은 중앙과 지방에서 행해진 제사의 증가로 인해 제기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던 결과로서 보여진다.

지금까지 고려 전기의 도량형 변화 속에서 상반요지 출토 제기와 『삼례도』형 제기의 규격을 비교한 결과,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제기는 규격과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1척을 약 25cm로 제작한 보와 궤는 11세기 초반에서 현종 21년(1030) 이전, 1척을 약 29~31cm로 제작한 보와 궤는 현종 21년(1030) 전후에서 정종 6년(1040) 이전, 1척을 약 33~34cm로 제작한 제기는 정종 6년(1040)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요지가 11세기 전반경에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상반요지에서 제기가 출토된 흑갈색 층위가 중덕요지 Ⅲ층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상반요지 흑갈색 층위와 중덕요지 Ⅲ층은 소량의 청자와 함께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기종의 백자가 다량 출토되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식해무리굽과 함께 소형 완이 제작되었다. 또한 이 층위의 유물을 분석한 결과 태토와 유약의 성분에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함량이 청자와 백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구분이 모호해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요지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은 상반요지에서 제기를 제작하였던 시기가 중덕요지 Ⅲ층에 해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²

즉 상반요지는 중덕요지 Ⅲ층과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으며, 하한은 알 수 없으나 11세기 전반경에 요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덕요지 Ⅲ층의 운영시기를 11세기로 상정한 학설과도 부합된다. 즉 11세기 전반으로 생각되는 상반요지 출토 제기의 제작 시기는 중덕요지 Ⅲ층이 배천 원산리요지와 시흥 방산동요지, 여주 중암리요지의 IV·V층의 운영시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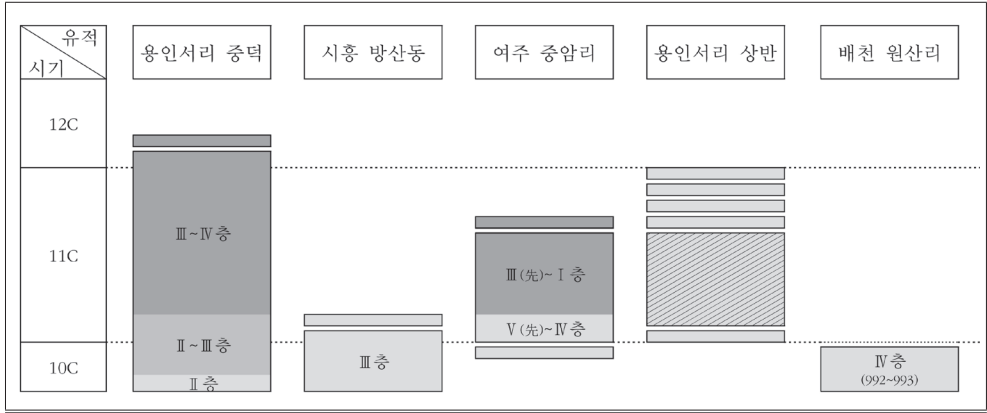
⁴¹ 『高麗史』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祭器都監.[文宗定 使二人三品兼之 副使五品兼之 判官六人丙科權務 吏屬記事二人記官二人書者二人”

『高麗史』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奉先庫.[宣宗十年 置于廣仁館畜穀米以備先王先后忌晨供辦 使一人副使一人判官二人乙科權務 恭讓王三年 罷];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第16卷 官府 府庫. “奉先庫在廣化門之東, 去順天館官道之北. 前門二間, 稍東開門. …… 蓋其中所藏, 乃奉先王祭器牲牢, 及國忌給齋料於此, 以施諸寺焉”

『高麗史』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都齋庫.[文宗定 使一人四品以上 副使三人六品以上 判官二人乙科權務 吏屬記事四人記官一人給使二人”

⁴²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경우 백자 제기가 매몰 폐기유구나, 건물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장 퇴적의 어느 층위에서 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장 퇴적 Ⅲ층에서 출토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당시 발굴에 참여하였던 김재열은 IV층에 가까운 곳에서 출토되었다고 교시하였다.(湖巖美術館, 앞의 보고서(1987), p. 137; 同著, 앞의 보고서(2003), pp. 33-34.) 용인 서리 상반요지와 중덕요지 출토유물의 기종과 형식을 포함한 전체적인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상반요지는 중덕요지 Ⅲ층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중덕요지 IV층의 경우 보고서의 기록이 Ⅲ층에 비해 소략하여 상반요지와 비교가 쉽지 않다. 다만 상반요지가 중덕요지보다 먼저 폐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9 고려 전기 중서부지역 요지의 상대편년



다 늦은 시기에 요업이 이루어진 반면, 증암리요지 I·II·III층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는 기존의 학설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근거가 된다(표 19)⁴³

V.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문헌 기록과 실제 유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고려 전기에는 북송에서 유입된 『삼레도』를 모본으로, 990년부터 북송으로부터 새로운 제기가 유입된 1117년 이전까지 제기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삼레도』형 제기는 초기에는 청자로 제작되다가, 11세기에 들어서면 백자요지에서 제작 되었으며, 대사 및 중사와 소사뿐만 아니라 잡사에 해당하는 산천제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에서 『삼레도』형 제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은 용인 서리 상반과 중덕요지로, 현재까지 8종의 기종이 확인되었으며, 『삼레도』에서 도기나 목기, 죽기로 제작한 제기를 백자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용인 서리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제기의 기본적인 형태는 『삼

⁴³ 曹周妍, 「高麗前期白磁의 特徵과 性格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99-100;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 28-32; 이종민, 「發掘窯蹟을 통해 본 埴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同著,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25-135 참고. 각 논문에서는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층위별 출토품과 전축요 및 토축요의 출토품을 비교 분석하여 중덕요지의 층위를 상대편년 하였다.

레도』를 따르나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기종에서는 실물이 아니라 도안을 모방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넷째,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삼례도』형 제기의 제작 방식은 테쌍기와 물레를 이용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작의 용이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테쌍기로 제작한 궤는 4분할 접합 방식에서 구연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상반요지의 보와 궤는 고려 전기의 도량형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1척의 기준에 따라 제작 시기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척을 약 25cm로 제작한 보와 궤는 11세기 초반에서 현종 21년(1030) 이전, 1척이 약 29~31cm인 보와 궤는 현종 21년(1030) 전후에서 늦어도 정종 6년(1040)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척이 약 33~34cm인 보와 궤는 정종 6년(1040) 도량형이 정비된 이후의 양제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상반요지 뿐만 아니라 중덕요지 Ⅲ층이 11세기 전반에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외에도 시흥 방산동요지와 상반요지 출토 궤에서 나타난 두께의 차이는 양제의 변화가 규격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용인 서리 상반과 중덕요지에서 출토된 『삼례도』형 백자 제기와 『삼례도』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삼례도』형 백자 제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작 방법과 제작 시기 및 제작 방식의 변화 등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고려 전기에 사용된 제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한편, 제기를 통해 용인 서리 상반과 중덕요지 Ⅲ층의 운영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히지 못한 중국 도량형의 수용 문제나, 제기의 수요자와 관련한 의문 등은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고려전기, 고려백자, 백자제기, 용인서리, 삼례도

■ 투고일 2014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4년 4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12일 ■

참고문헌

1. 문헌

『高麗史』, 『世宗實錄』, 『宋史』, 聶崇義, 『三禮圖』,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2. 단행본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1999.

공중유물전시관, 『중요대제문물』, 2004.

金禧庚, 『韓國梵鐘目錄』, 韓國梵鐘研究會, 1978.

김영진,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토기 청자 I』, 예경, 200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幻の名窯 南宋修内司官窯』, 2010.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3. 보고서

機甸文化財研究員·龍仁市·龍仁文化院,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1~5차 조사 경과 보고』, 2007.

機甸文化財研究員, 『華城 花山洞 遺跡-화성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시·발굴조사 보고서』, 2010.

명지대학교박물관·(주)보보스컨트리클럽, 『용인 엔젤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9.

驪州郡·京畿道博物館,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200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댐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 1985.

한신대학교박물관·화성군, 『水原 古邑城』, 2000.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芳山大窯』, 2001.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 1987.

_____,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I』, 2003.

4. 논문

- 김윤정, 「高麗末·朝鮮初王室用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第260號, 韓國美術史學會, 2008.
- 金載悅, 「龍仁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 김철용, 「고려시대 山川祭」, 『한국중세사연구』 제11호, 한국중세사학회, 2001.
- _____, 「고려 國家祭祀의 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研究』118, 한국사연구회, 2002.
- 尹龍二, 「韓國 靑瓷의 成立」, 『美術史論壇』 vol. 15, 한국미술연구소, 2002.
- 李溶振, 「高麗時代 鼎形靑瓷 研究」, 『美術史學研究』第252號, 韓國美術史學會, 2006.
- 이중민,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埴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第228·229號, 한국미술사학회, 2001.
- _____, 「發掘窯蹟을 통해 본 埴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흥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고려시대의 도량형과 그 의미」, 『天下均平-度·量·衡 600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1.
- 李喜寬·崔健, 「高麗初期 靑磁生產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第232號, 韓國美術史學會, 2001.
- 이희관, 「始興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 『신라문화』 제23집, 신라문화연구소, 2002.
- _____,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埴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第244號, 韓國美術史學會, 2004.
- _____,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의 關係에 대한 몇 가지 問題」, 『史學研究』96(韓國史學會, 2009).
- _____,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1.
- 張南原,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vol.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 張成旭,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田勝昌, 「龍仁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曹周妍, 「高麗前期 白磁의 特徵과 性格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vol. 1, 한국미술연구소, 1995.
- _____, 「初期靑磁 編年問題 再論」, 『美術史學研究』第250·251號, 韓國美術史學會, 2006.
- 최순권, 「종묘제기고」,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2004.
- 南秀雄, 「圓山里遺蹟と開城周邊의靑磁資料」, 『東洋陶磁』 vol.22, 東洋陶磁學會, 1992.
- 謝明良, 「北方部分地區元墓出土陶器的區域性觀察-從漳縣汪世顯家族墓出土陶器談起」, 『故宮文物月刊』 279期, 國立故宮博物院, 2006.
- 陳芳妹, 「再現三代」, 『千禧斗宋代文物大展』, 國立古宮博物院, 2000.

국문초록

고려 전기의 자기제 제기는 북송의 『三禮圖』와 그 양상이 유사하며, 12세기 전반 이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만이 확인되었을 뿐, 출토 유적이 드물고, 전세품이 극히 적어 이와 관련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의 발굴을 통해 이전까지 확인되지 못한 고려 전기 제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기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용인 서리 중덕을 포함한 상반요지에서는 『高麗史』에서 언급한 약 33종에 해당되는 제기 중 8종의 제기가 확인되었으며, 『삼례도』에서 木器와 陶器 및 竹器로 제작하는 제기를 磁器로 번안하여 제작하였다. 출토된 제기는 기본적인 형태가 『삼례도』의 도안을 따르나, 세부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기종에서는 도안과 동일하게 모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기는 테쌍기와 물레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제작의 용이성과 효율성에 따라 제작 방식이 변화가 확인된다.

상반요지에서 출토되는 보와 궤는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어 『삼례도』에서 규정한 규격과 비교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 전기 도량형의 변화 속에서 상반요지 출토 보와 궤의 제작 시기를 규명한 결과 상반요지의 보와 궤는 1척의 기준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된다. 1척을 약 25cm로 제작한 보와 궤는 11세기 초반에서 현종 21년(1030) 이전, 1척이 약 29~31cm인 보와 궤는 현종 21년(1030) 전후에서 늦어도 정종 6년(1040) 이전, 1척이 약 33~34cm인 제기는 정종 6년(1040) 이후에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흥 방산동요지와 상반요지 출토 궤의 두께를 통해 양제의 변화가 제기의 규격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기의 제작 시기는 상반요지와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덕요지 Ⅲ층이 11세기 전반경에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반요지 출토 제기의 연구는 고려 전기의 제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년으로 비정되던 요지의 운영시기를 제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s Discovered at Sangban Kiln Site and Their Date of Creation

Kim Hyo-jin *

Porcelain ritual vessels from the early Goryeo Period are similar in appearance to those depicted in *Sanlitu* (The Three Ritual Classics, Illustrated), a Northern Song book that visually documents ritualistic customs. There are very few known extant examples of these vessels, presumed to have been used until the early 12th century, whether discovered thr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or passed down in families, which explains the dearth of in-depth research into related topics. However, once into the 2000's, a series of excavations conducted at the former site of a Goryeo white porcelain kiln (Sangban Kiln Site in Seo-ri, Yongin) permitted to unveil a host of new information about these ritual vessels, providing also a turning point in research.

Eight of the thirty-three sacrificial vessels, mentioned in *Goryeosa* (The History of Goryeo, 1451), were identified at this kiln site and the associated Jungdeok Kiln Site. Ritual vessels discovered there are porcelain versions of wooden, pottery or bamboo vessels described in *Sanlitu*. Faithful to the vessels in *Sanlitu* in their overall shape, they, however, differ from them in details, although some of them are exact replicas. The vessels were either made by coiling or shaped using a potter's wheel. The choice of a method depended on ease and efficiency.

The *bo* and *gwe*, the ritualistic grain dishes, discovered at the Sangban Kiln Site are relatively well preserved, allowing comparison with dimensions for corresponding vessels, prescribed in *Sanlitu*. Through this comparison, which took into consideration the history

* National Museum of Korea

of weights and measures in early Goryeo, the *bo* and *gwe* were dated to three distinct periods, according to the length of a *cheok* (an ancient unit of length). The *bo* and *gwe* whose dimensions were based on one *cheok* being about 25cm are likely to have been made in the early 11th century, before 1030 (the 21st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Those whose dimensions were based on a *cheok* being 29-31cm are likely to have been made in around 1030 (the 21st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or at least no later than 1040 (the 6th year of King Jeongjong's reign). Finally, the *bo* and *gwe*, whose dimensions were based on one *cheok* being approximately 33-34cm, were probably made after 1040 (the 6th year of King Jeongjong's reign).

The changing system of measurement appears to have not only caused variations in the dimensions of these vessels, but also influenced their shape, as evinced by the thickness of the *gwe* that were uncovered in the Kiln Site in Bangsan-dong, Siheung and the Sangban Kiln Site.

A study of Stratum III of the Jungdeok Kiln Site, originally conjectured to have been active in the same period as the Sangban kilns that produced these ritual vessels, shows that it was actually active by the first half of the 11th century. The study of the ritual vessels discovered at the Sangban Kiln Site has not only widened our understanding of the ritual vessels of early Goryeo, but has also provided a specific timelin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kiln, which previously could only be estimated using comparative chronology.